

시사원정대 NIE 2023-4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2주 (90분)		
학습 목표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해법에 얽힌 배경과 논란을 이해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의 뜻과 현명한 소비를 위한 5가지 팁을 알아본다. 바이오폰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활동 초점	-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내놓은 배경을 알고, 그에 얽힌 이해관계를 파악한다. - '슈링크플레이션'의 뜻을 알고 기업의 마케팅 사례와 소비자로서의 현명한 소비법을 안다. - 바이오폰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바이오폰이 가져올 수 있는 논란을 상상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8
펼치기	- 44~46 맞출사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듬으며 일본 배상 이끌어야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제3자 대위변제 해법	25
	- 64~67 키워드가 머니 - 슈링크플레이션이 뭐니?	- 슈링크플레이션의 개념 - 기업의 마케팅 방법과 현명한 소비법	25
	- 82~85 잇(M) 뉴스 - 스마트폰 다음엔 바이오폰이 온다고?	- 스마트폰의 과거, 현재, 미래 - 바이오폰의 장점과 단점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정하고 그 상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브랜드 이름을 정해보자.	7

[20 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2주		
학습 목표	'슈링크플레이션'의 뜻과 현명한 소비를 위한 5가지 팁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슈링크플레이션'의 뜻을 알고 기업의 마케팅 사례와 소비자로서의 현명한 소비법을 안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64~67 키워드가 머니 - 슈링크플레이션이 뭐니?	- 슈링크플레이션의 개념 - 기업의 마케팅 방법과 현명한 소비법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정하고 그 상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브랜드 이름을 정해보자.	2

맞춤사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듬으며 일본 배상 이끌어야

<어휘 UP>

일제 강제징용(동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가 부려먹음.

배상: 손해를 물어줌.

대승적: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함.

제3자 대위변제: 행정안전부 소속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

선제적: 먼저 제안해서 제압함.

우회적: 멀리 돌아가는 성질.

<발문>

1.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제3자 대위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를 말해 보자.
2. 한국과 일본은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한지 만화로 그려보자.

<교사 참고자료>

<자료1> [뉴스 브리핑]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놨어요. 강제징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한 일을 가리키는 말. 정부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기본적인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

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그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어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남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달라고 요구함) 소송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아 갈등이 컸지요. 이번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해 주고, 추후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해법을 내놓았습니

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

다. 이어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

[어린이동아 2023-03-06]

<자료2>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안보-경제 갈등, 3년 8개월만에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 尹, 기시다에 "지소미아 정상화 법적 절차 종료"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

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발언했고, 책상을 보던 기시다 총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 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북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언급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가 조속히 도입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정부가 안보, 경제, 인적교류,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가 꾸러지게 되는 것.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락)

[동아일보 2023-03-16]

키워드가 머니

슈링크플레이션이 뭐니?

<어휘 UP>

슈링크플레이션: 값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기업의 전략.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

마케팅: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

시장 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등.

<발문>

1. 최근 산 상품 중에 제품의 양이나 무게가 줄었다고 느끼는 사례가 있다면 말해보자.
2. 현명한 소비를 위한 3대 원칙을 써 보고 실제로 적용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가격 동결됐지만, 용량 줄었네" 식품·외식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식품·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줄였다고 항변한다. 이마저도 미봉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많은 소비자들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다만 일부에선 한번 오른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량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악화된 경영 환경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제품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0(2020년=100)으로 2020년 대비 5.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외식 업계도 가격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배달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오르자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중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식품기업도 있다. 제과업계가 대표적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10월 핫브레이크 제품 중량을 기존 50g에서 45g으로 낮추는 대신 가격은 10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농심은 양파링, 오징어집의 중량을 낮추고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 롯데제과는 카스타드 대용량 제품을 1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대신 가격 동결을 택했고 꼬깔콘도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비단 식품 업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치솟는 원부자재 가격을 고려해 다양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반찬을 보다 저렴한 식재료를 이용한 반찬으로 교체하거나 제공하는 반찬수를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기류를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가격 인상 대신 제공하는 고기 중량을 줄이기도 한다.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택한 식품·외식업체들은 어려워진 영업 환경 속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이 같은 선택을 종용한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소비자들

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용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다.

반대 의견을 보이는 네티즌의 경우 "가격은 한번 인상하면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중량을 줄이거나 제공하는 반찬 등에 변화를 주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착한 가격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선 슈링크플레이션 전략 대신 대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은 임시방편일 뿐 원부자재 상승시기에 수익 방어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통 채널별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식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가격 정책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3-02-02]

스마트폰 다음엔 바이오폰이 온다고?

<어휘 UP>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1000여 개의 회사가 참가해서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림.

바이오폰: 몸에 마이크로칩(전자 회로가 포함된 작은 조각)으로 심은 휴대전화.

트랜스 휴먼: 몸에 전자 기기를 이식하거나 전자 기술을 적용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인간.

임플란트: 사람 몸에 넣는 물질.

<발문>

1. 전자 임플란트를 몸에 넣는다면? 임플란트 이식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찬성한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기능의 임플란트를 이식하고 싶은지 적어 보자.
2. 트랜스 휴먼의 모습은 어떨까? 바이오폰을 이식한 트랜스 휴먼의 모습을 그려 보자.

<교사 참고자료>

'휴대전화의 아버지'가 보는 미래..."다음 세대, 귀 밑에 폰 심게 될 것"

'휴대전화의 아버지' 마틴 쿠퍼가 언젠가는 사람의 피부 아래에 휴대전화를 이식해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마틴 쿠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다음 세대는 전화기를 귀 밑에 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쿠퍼는 지난 1973년 최초의 휴대전화를 개발한 바 있다.

쿠퍼는 사람의 몸이 완벽한 충전기인 만큼 피부 밑에 이식된 휴대전화가 별도의 충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이어피스(생체 이식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는 데는 미량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퍼는 "전화를 걸 때마다 이어폰이 없으면 이 납작한 스마트폰을 들고 어색한 자세로 팔을 들어올려야 한다"며 "현재의 스마트폰은 수많은 앱과 사람 얼굴 곡률에 맞지 않는 화면으로 인해 너무 복잡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쿠퍼는 피부 아래 휴대전화를 이식하는 것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초의 휴대전화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오늘날처럼 휴대용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50년 전은 정말 원시적인 시기였다. 인터넷, 대규모 집회로, 디지털 카메라 등은 모두 없었다"며 "언젠가 휴대전화가 카메라와 백과사전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전화번호를 할당받을 것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언젠가 모든 람들이 휴대전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거의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퍼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인한 SNS(소셜미디어) 중독,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사생활과 중독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신의 창조물인 휴대전화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쿠퍼는 "나는 역사를 살펴보고 인류가 기술을 통해 이룬 모든 발전을 살펴봤다. 기복은 있지만 인류는 진보해나가고 있다"며 휴대전화 개발과 같은 기술적 발전이 다양한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